

< 서양 현대미술, 아시아를 만나다 >

7. 독창적인 아시아 미학을 창조한 일본의 거장들과 현대미술가들

정윤아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1. 모던 아트

파리로 건너가 유화 기법을 습득한 1세대 미술가들로 주로 인상주의(외광파)에 영향을 많이 받음.

대표적인 미술가로 Asai Chū (1856 – 1907), Kuroda Seiki (1866-1924), Léonard Tsugouharu Foujita (1886 –1968), Narashige Koide (1887-1931), Sotaro Yasui (1888-1955), Kishida Ryusei(1891-1929), Zenzaburo Kozima (1893-1962), Mitsu Ai (1907-1946) 등.

2. 추상화

1900-10년대에는 유럽 모더니즘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추상화가 지배적. 말레비치,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몬드리안, 미로 등 대표적인 유럽 추상화가들의 영향을 엿볼 수 있음. 그러나 1930-4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자적인 추상화 스타일을 구사하는 미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

대표적인 미술가로 Koshiro Onchi (1891-1955), Takeo Yamaguchi (1902-1983), Saito Yoshishige (1904-2001), Tai Kambara (1904-1999), Taro Okamoto (1911-), Toshinobu Onosato (1912-86), Kumi Sugai (1919-1996) 등

3. Gutai (具体) Group

1954년 일본 오사카에서 추상화가 지로 요시하라(Jiro Yoshihara)를 중심으로 결성된 실험적 전위예술가 그룹. 소조 시마모토(Shozo Shimamoto), 카즈오 시라가(Kazuo Shiraga), 사부로 무라카미(Saburo Murakami) 등 약 50여 명이 참여. 구타이(Gutai)는 영어로 '구현(embodiment)'을 의미하는 말로 이 그룹은 "남을 모방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을 창조하라"는 요시하라의 말을 모토로 삼아 기존의 예술 개념을 타파하는 추상적인 회화 형태 및 실제 행위나 오브제, 환경적인 요소 등과 결합된 미술 추구.

1955년 첫 구타이 그룹전에서 시라가는 진흙탕 속에서 퍼포먼스 시행. 이것은 '해프닝(Happening)'의 창시자인 앨런 카프로(Allan Kaprow, 1927-2006)의 《6개 부분으로 된 18건의 해프닝》보다 앞선 것으로 이 그룹의 미술사적 공헌. 1956년 도쿄에서 열린 두 번째 그룹전에서는 다나카(Atsuko Tanaka)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작품과 무라카미의 몸을 던져 종이막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주목을 받음. 이어 1957년에는 아키라 가나야마(Akira Kanayama)가 거대한 풍선에 낙서를 하듯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행위에 기초한 이들의 작품은 정기간행물 『구타이』(1955~1965)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의 앵포르멜과 대지미술, 플럭서스 운동 등과 때를 같이 하며 형식주의적인 과거와 결별하려는 젊은 예술가들의 욕구 심화. 1962년 구타이 화랑의 개관으로 작품 스타일은 행위에서 회화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정점에 달함. 구타이 그룹은 리더인 요시하라가 사망한 1972년을 기점으로 분열. 그러나 이들의 전위적 활동은 일본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대표적인 미술가로 Jiro Yoshihara (1905-1972), Motonaga Sadamasa (1922-), Kazuo Shiraga (1924-), Akira Kanayama (1924-2006), Saburo Murakami (1925-1996), Shozo Shimamoto (1928-), Atsuko Tanaka, (1932-2005) 등

4. Monoha (物派)

(1) 1960~1970년 일본에서 나타난 미술 경향.

모노란 '물(物)', 즉 물체·물건이라는 뜻. 물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모노파는 나무·돌·점토·철판·종이 등의 소재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직접 제시. 그럼으로써 물체에 근본적인 존재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물체와 물체, 물체와 공간, 물체와 인간 사이의 관계 등을 통해 창조보다는 존재간의 관계성 파악에 주력한 것이 특징.

대표적인 미술가로 Nobuo Sekine (1942-), Katsuro Yoshida (1943-), Katsuhiko Narita (1944-), Kishio Suga (1944-), Noboru Takayama (1944-), 이우환 (1936-) 등.

(2) 이우환과 모노하 이론

모노하에 최초로 이론적인 토대를 세운 작가는 한국의 이우환(李禹煥). 그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을 참고하여 모노하의 작업을 '그대로의 세계와의 관계'라고 평.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뒤 모노하의 이론과 실천을 주도하여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우환은 존재에 관심을 가져 관념과 실재의 이분법적 차이성을 탐구하고 충돌하지 않는 대조적인 요소를 통해 외부와의 관계성 확립을 다져 나감. 중요한 점은 이우환이 동시대 서구 미술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자기 예술의 당면 과제로 삼았다는 점. 당시 서양 미술계는 도널드 저드, 칼 안드레 등 미국 백인 남성 작가를 위시로 사물과 미술의 경계를 실험하기 위해 등장한 미니멀리즘이 대세 장악. 이우환은 미니멀리즘의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세계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모노하 이론 정립. 이를 돌과 철판, 유리, 밧줄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관계항'이라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보여주면서 일본 모노하 계열 작가의 리더로 부상, 서구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 마련. 이우환은 이론과 작품 활동을 병행한 몇 안 되는 아시아 작가 중 한 명. 서양에서는 특히 이 점을 높이 평가. 첫 평론 <사물에서 존재로>를 시작으로 첫 평론집 <만남을 찾아서> 및 <데카르트의 서구의 숙명> 등의 글을 통해 그는 하이데거에서 메를로 폰티, 미셸 푸코에 이르는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불교와 선(禪) 사상을 토대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Nisida Kitaro, 1870-1945)의 사상을 도입해 서구의 모더니즘을 신랄하게 비판. 신체성과 장소성의 개념을 통해 세계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이론과 자신의 이론을 반영하는 작품 활동 병행.